

# 여야, 국정원 예산통제-정보위 상설화 격돌

■ 국정원 개혁특위 2차 공청회

與 “예산공개는 정보전쟁서 우리 카드 보여주는 것”

野 “정보기관 활동 내역 공개, 권력 오·남용 막아야”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의 17일 공청회에서도 국정원에 대한 외부 통제 강화를 놓고 여야 의원, 전문가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이틀째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는 특히 국정원의 예산 항목 공개와 국회 정보위원회 상설화를 통한 견제 강화 방안이 주요 의제가 됐다.

이날 공청회에서 새누리당이 추천한 이재교 세종대 자유전공 교수, 장

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예산 공개와 정보위 보고 의무가 강화될 경우 국가 안보를 위한 정보 수집 기능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야당이 추천한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투명한 활동 내역에 대한 공개 수준을 높여 권력의 오·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맞섰다.

이재교 교수는 “민주당 주장대로 비밀활동비(에비비)를 없애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한다면 대한민국에는 정보기관이 없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회 정보위 내에서 국정원 예산을 항목별로 심사하되, 예결위에 넘길 때만 총액으로 넘기는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영수 교수는 “정보위의 상설화를 우선해야 할 이유는 없다”며 “현행 정보위 운영에 중대한 결함이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상설화가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모르겠지만 꼭 정보위를 상설화해야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정원 예산을 통제한다면 국정원의 활동 규모가 드러나 대략적인 윤곽이

나타나는 단점이 있다”며 “예산 공개는 득보다 실이 더 많고 치열한 정보전쟁에서 경쟁자에게 자신의 카드를 모두 보여주는 것은 패배로 직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오동석 교수는 “불법행위에 대한 통제가 없다면 국정원 업무에 효과성과 효율성이 있을 수 없다”며 “최소한 국회 정보위 차원에서는 예산항목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고 에비비를 관련부처 예산에 별도로 편성하는 제도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보위 상설화에 대해서도 “겸임위원회가 아닌 전임 위원회로 설치해야 한다”면서 “또한 정보위의 전문성을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해 비밀유지와 안전보장이 검증된 정보

전문가들이 정보위 소속 의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희 교수는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는 국회를 비롯한 국민적 감시, 통제 장치의 확보가 필요하다”며 “정보위를 전임위원들로 구성하고, 총괄예산·비밀예산 체제를 없애 뒤 국정원이 관련 세부자료를 정보위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산이 공개되면 기밀이 누출될 수 있다는 여당 측의 우려에 대해 “국회 심의예산과 국정원 집행예산은 일치하지만, 국민에게 공개되는 예산은 조금 다를 수도 있다”며 “예산이 공개된다고 기밀이 새어나간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주승용 의원 26일 출판기념회

국회헌정기념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인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오는 26일 오후 2시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자신의 저서인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다’의 출판기념회를 연다.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다’에는 주 위원장이 전남도의원, 군수, 시장, 3선 국회의원 이 되기까지의 무수한 시련과 시·도민과 함께했던 이야기, 가족이야기 등을 담았다.

특히 주 위원장은 책의 첫머리를 강단있던 어머니에 대한 기억으로 시작하며 대화와 설득이라는 정치의 근본을 어머니로부터 체득했다고 고백했다. 주 위원장은 “대화는 상대가 남득을 할 때까지이다. 그러면 대부분 어머니

의 편이 되었다”며 “내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정치가 무엇인지 근면까지 몸소 알려 깨닫게 해주셨다”고 술회했다. 이 같은 가르침은 그 정치에 투영돼 국회 국토교통위가 민생 법안을 무리 없이 처리하는 데에도 큰 힘을 발휘했다고 적었다.

이 책에는 또 주 의원이 바른편 전남지역의 낙후된 사회기반시설(SOC) 확보의 필요성과 여수 세계박람회 기회 과정 및 성과 등이 수록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대민봉사·생활정치구현

‘민생자원봉사단’ 발대식

민주 전남도당 오늘 광양시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이윤석·사진)은 18일 오후 3시 광양시 광양읍 광양신문 화예술회관 1층 대강당에서 전남

대민봉사활동과 생활정치구현을 강화하기 위한 ‘민생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갖는다고 17일 밝혔다.

봉사단은 발대식 뒤 광양시에서 3곳의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광양사 탐나눔복지재단으로부터 기부받은 사랑의 연탄 1000장을 전달하고, 광양 소재 초등학교와 중학교 앞에서 하교 길 횡단보도 교통정리 등 민생지원을 할 예정이다.

봉사단은 생활지원 봉사단과 생활상담 봉사단, 교통안전 봉사단, 보건의료 봉사단, 환경보호 봉사단, 일손돕기 봉사단 6개 분야로 나뉘어 전남지역 곳곳을 돌며 순회봉사 등을 통해 도민들의 애로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갈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 김정은·리설주 부부 팔짱 끼고 등장

북한 조선중앙TV는 17일 오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리설주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주기를 맞아 평양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한 장면을 담은 5분 가량의 영상에서 레드카펫이 깔린 계단으로 김수신태양궁전 내부에 들어갈 때 팔짱을 끼는 모습을 내보냈다. 이날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추모대회 주석단에는 ‘장성택 라인’으로 알려진 로두철 내각 부총리, 김양건 당 비서, 문경덕 평양시 당 책임비서,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등도 나타나 건재를 과시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17일 오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리설주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주기를 맞아 평양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한 장면을 담은 5분 가량의 영상에서 레드카펫이 깔린 계단으로 김수신태양궁전 내부에 들어갈 때 팔짱을 끼는 모습을 내보냈다. 이날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추모대회 주석단에는 ‘장성택 라인’으로 알려진 로두철 내각 부총리, 김양건 당 비서, 문경덕 평양시 당 책임비서,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등도 나타나 건재를 과시했다.

/연합뉴스

## 철도파업 보고 순서 싸고 국토위 파행

여야 충돌 정치 소동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7일 개최한 전체회의에서는 택시발전법안 등 법안처리와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현안보고 순서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정회 되는 등 파행을 빚었다.

이날 국토교통위에 올라온 안건은 모두 18개인데 1번부터 17번까지는 택시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처리였고, 마지막에 철도파업 현황 및 대책에 관한 보고가 이뤄지는 순서였다. 하지만, 주승용 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시급한 사안임을 고려, 철도파업 사태 논의를 먼저 해야한다고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이미 작성된 의사진행에 따라 법률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의사진행법안만 주고받다가 오전 회의는 시작 1시간 만에 정회 됐다.

민주당 소속인 주 위원장은 회의 시작 직후 “회의를 소집한 목적은 철도파업의 현안 보고를 듣는 것이었다. 의사진행에 법안이 함께 올라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국민이 철도파업에 관심이 많으니, 현안보고를 먼저 들었고 법안을 오늘 심사할지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은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는데, 이를 바꾸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고, 같은 당 이장우

의원은 “위원장이 어떤 법안이 올라왔는지 파악도 못하는 위원회가 어디 있는가. 회의장에 와서 알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이윤석 의원은 “법안은 오늘 처음 봤다. 우리는 현안 보고만 하는 것으로 알고 오늘 회의 개최에 합의한 것”이라며 “철도파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양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세 시간이 만에 다시 열린 오후 회의도 법안 처리가 먼저냐, 현안 보고가 먼저냐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의사진행법안을 계속하면서 논의는 답보상태를 이어갔다. /박지경기자 jkpark@

## 임내현 의원 ‘노인·장애인 교통사고근절 법안’ 발의

민주당 임내현 의원은 17일 노인·장애인의 교통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인·장애인 교통사고근절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노인·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해 과속방지턱을 노인·장애인이 보호구역 안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고, 통행하는 운전자들이 보호구역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안의 차도 노면을 일반도로와 구별되는 색으로 포장하도록 했다.

노인 교통사고는 2008년 2만3012건 발생한 이래 2012년 2만818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도로교통



법에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노인보호구역은 566곳으로 어린이보호구역 1만 5136곳의 4%에 불과하다.

임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노인·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한데도 그동안 법적으로 제도화되지 않아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박지원 ‘박대통령 NSC사무처 부활 아주 잘한 일’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7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북한 사회를 안정시켜 주고, 김정은 체제를 강화시켜서 북한 핵 문제를 김정은으로 하여금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에서) 강경한 세력이 득세한다면 제4차 핵실험이나 대남 도발을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전날 박 대통령이 국가안보회의(NSC)를 상설화하고 사무처를 부활키로 한 데 대해 “NSC 상



설조치가 부단히 움직여서 북한을 주시하고, 대책을 강구해 대통령에게도 건의를 하지만 국민도 안심시켜야 한다는 의미에서 아주 잘한 결정”이라고 평했다.

박 위원장은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 “공개처럼 등의 문제는 반드시 강력히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래야 한다”면서 유엔 등 국제사회의 조사와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나주 혁신도시 · 강변도시 남다른 부동산 투자법!

매물을 팔려는데? 매물을 사려는데?

고객 여러분의 고민을 솔로몬 부동산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상업용지 / 근생용지 / 점포주택지 / 주차장용지

**바로 지금이 기회!!**

나주 혁신도시 전문 나주 솔로몬 공인중개사

☎ H. 010-5587-3080 / 010-3505-8005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

부동산 성공 투자 하늘땅 공인중개사가 함께합니다

상가/건물

- \* 첨단 월계동 LCE타워 2층 상가 960㎡ 매 18억(분할 매매 및 임대 가능)(대형병원, 화원, 프렌차이즈 적합)
- \* 교원공제부대 1층상가 225㎡ 매 12억3천(보1억3천, 월600만 포함)유형프랜차이즈 입점 중
- \* 서구 아파트상가 1,800㎡(점포 7칸) 매 10억 (보 1억1천, 월610만, 용5억9천 포함)
- \* 사우나건물(8층) 17억5천(보8천, 월800만 대출 9억 5천), 직영 월천만수입
- \* 도천동 신축상가 2,500㎡, 건평500㎡ 17억
- \* 벽진동 창고, 고물상용지 2,900㎡ 임대 보2천/월200

대지/전답

- \* 상무지구 대지 405㎡(122평) 매 8억5천
- \* 용전동 전(자연녹지) 1,180㎡ 매5억3천
- \* 완도 약산 전(계획관리) 11,000㎡ 매 8억4천
- \* 장흥 용산면 전, 임야 101,851㎡ 매 6억
- \* 남평 우산리 전(계획관리) 17,000㎡ 매 5억2천

기타

- \* 영암 삼호중공업인근 주유소 매 9억(대출 5억)
- \* 곡성 목사동 식당 1,750㎡ 매 3억9천(급매, 조정가)
- \* 담양 월산면 기든식당 1,520㎡ 매 3억8천

광주, 전남권 매도·매수 상담, 접수 환영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늘땅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5536-0382 Fax 062) 974-0449

금당공인중개사

매매·교환·설계·시공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투자·감정가 이하

- 화순군 대덕면 149평 은행 2억 감정 3억4천 매도2억9천
- 용산동 재개발지역 주택 대지 40평 은행 4천 매도 8200
- 투지 담양군 창평면 창평리 대지 539㎡(16318500만원)
- 함평군 영일 칠되는 여관 대지 320평 건평211평 객실 21실 대출4억 교환도 가능 8억3천
- 담양군 대덕면 운암리 임야 71430평 평당 3천원 2억
- 광산구 신창동 6차선과 4차선 도로 코너 대지302평 건물은 4층 715평 사육, 병원, 요양시설, 종교시설 적합 은행 18억2천 전세3억에 월 1600선 수익 증축도 가능 33억
- 동명동 5층건물 대지318㎡(96)건평228평 상가와 주택 원룸 15개 투룸3개 보증금 1억2천에 월 500선 수익 9억6천
- 담양과 순창간 모뎀 땅 1745㎡(528)건물은 160평 객실18개 은행 3억7천 개발가능한 산과 교환도 가능 5억
- 그린벨트 담 양양군 창평면 고속도로 입구 차랑 진입 원할 2425㎡(734)공시가에 매도 3860만원 통물사육·아적장 등 적합
- 나주시 봉황면 소재지 대지 119평 주택 30평 6000만원
- 모뎀, 전북 부안군 번산면 대지1677㎡(507)건평 422평 객실 48실 대출6억2천 매도 8억3천
- 임야 무안군 용탄면1699평 평당 2500원 매도 1억46천
- 사철적합 건물 함평군 월야면 땅 2657㎡(804)건물 2층 57평 은행 2억 기도원용 산 주택과 교환도 가능 5억
- 생촌동 원룸 대지 51평 건평 84평 원룸, 쓰리룸 57개 2억4천
- 신안군 압해도 바닷가 전 2144평 평당 18만원 3억9천

매도·임대

- 생촌동에 신축중인 기도생활주택 2차 건물 호텔급 시설의 풀옵션 9평형 주택, 입주는 1월 임대는 전세1000에 월40선, 매매는 6300만원(대출 3천만원 포함)투자자는 여러개를 매입해서 임대하면 수익성이 매우 좋음.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생촌동 (구) 등기소 자리, 기도 생활주택 전시관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주)다와부동산 컨설팅부, 매수신장대리업체(법원인가) 근린시설임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근린시설

- ▷ 동구 지산동 준주거 3층근린 대지241㎡ 건평307㎡ 감정가4억
- ▷ 광산구 쌍암동 일반상업 숙박시설 대지1760㎡ 건평 2821㎡ 감정가46억 최저가26억
- ▷ 나주시 송월동 상업지역 6층상가 대지545㎡ 건평 2309㎡ 감정가13억 최저가7억

단독주택

- ▷ 북구 장동동 전원주택 대지1763㎡ 건평137㎡ 감정가1억8천만
- ▷ 북구 운암동 2층단독주택 대지149㎡ 건평161㎡ 감정가1억 최저가7천만
- ▷ 나주시 남내동 2층주거 2층주택 대지319㎡ 건평297㎡ 감정가2억3천만 최저가1억3천만

공장및창고

- ▷ 북구 대촌동 창고및대지 토지2800㎡ 건물303㎡ 감정가11억 최저가78억
- ▷ 광산구 용동 일반공업 2층공장 토지3305㎡ 건물2711㎡ 감정가30억 최저가17억
- ▷ 강진읍 송덕리 냉동,저온창고 토지33650㎡ 건물11762㎡ 감정가94억 최저가27억

토지매매

- ▷ 동구 내남동 1층주거 전원주택부지 주거환경최상 대지750㎡ 상담후 가격조정
- ▷ 무안군 해제면 덕산리 관리지역 전, 임야 3642㎡ 매매3,500만
- ▷ 광산구 지평동 자연녹지 대지, 전 2115㎡ 매매5천만(조정가)

☎ 문의 010-4911-4989 (팩스 062-226-3607)

공장 급매매

하남공단 9번로 인근 (천변 4거리 코너) 토지 3,305㎡ 건물 1,300㎡

- 사무실 1,2층
- 높이 : 8m
- 호이스트 3톤 2대
- 전기 : 200kw

물류창고 최적 매매가격 18억원

송학동 계획관리지역 잡종지(8,000㎡) 임야(7,000㎡) 매매가격 3억5천만

신진공인중개사 010-2644-4265 011-9602-6225